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박 성 택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경북대 문과대학(철학)/영남대 경영학과/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한진, 한라그룹 기획실/예술의 전당– 미술, 관재, 감사, 총무, 고객관리, 기획부장/경영지원팀장/전시사업팀장/기획운영국장/사장직무대행/상임이사 사무처장/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 자문위원/경품용상품권인증심의위원/(재)서울예술단 이사/공공문화예술기관경영협의회 간사위원회 위원장/부산 오페라하우스건립 추진위원/성신여대 겸임교수/한국예술경영학회 부회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 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문화의 시대에서 건축과 예술을 빼고 얘기 할 순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과 떨어질 수 없음을 당연시 하고 사회 일각(?)에서도 그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인과 건축사들과의 실질적 교류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 문화 소통과 총괄의 場!
예술의전당!
오랫동안 그 문화예술의 각 장르를 아우르고 운영해 오신 분과 우선 자리를 함께 해 보기로 하였다. 작은 계기일지 모르나 건축과 예술의 깊은 맛을 우리 모두가 서로 체득하고 더욱 활발히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불씨가 더욱 커져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생명의 불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겠는가.
올 해 내로는 그런대로 건축초대석이 예상 경로를 가리라는 바람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결국 당초 약속 면담인 사정으로 불가피한 변경이 초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급한 약속과 그의 고마운 배려로 그래도 홈베이스를 밟는 기분이다.

비록 추운 한 겨울의 날씨지만, 오래 눈에 익은 장소이고 가깝고 미더운 사이라는 신뢰 하에 편안한 기분으로 약속 장소로 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의 전당답게 규모도 크고, 언제나 여유롭고 멋진 도심 공간이다. 그의 사무 공간 또한 정갈하고 차분하다.

예술과 문화, 건축을 서로 얘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만의 선입관일까?
사무실 등에서 인터뷰해 오던 것과는 달리 음악홀로도 자리를 옮겨도 본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충고조차 친근한 덕담처럼 다가온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와 건축이 잘 되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알기에!
德人과 知人을 만나면 그 德과 智慧의 자연스런 베품을 받듯이 함께 한 필자의 부족함도 조금은 메워지는 듯하다.
서둘러 마무리함이 아쉬우나 그래도 여타 경우와 견주어 모자람이 없으니 돌아오는 길 매운 찬바람도 괜찮다!

박**찬정** :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흔쾌히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박성택 : 환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나마 건축전문가와 건축문화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보고 싶었던 터라 저도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박 : 그리 말씀해 주시니 좀 더 편안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전당의 역사도 20여년이 된 것 같으니 간단하게나마 우선 역사적 과정과 성장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박 : 네.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1980년을 지나 새로운 정치질서가 자리잡아가고 있었고 경제도 성장기에 들어설 즈음에 서울이 올림픽(1988) 개최지로 결정되었지요.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할 인구 1천만의 국제도시로서 당시 서울의 문화공간은 말할 수 없이 빈약하였죠. 다목적극장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 외에 음악전용 연주장 하나 없었습니다. 삶의 수준으로 봐서도 문화적 상징이 될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1982년에 문화공보부가 예술의전당 건립을 결정하여 건립본부를 발족시켰으며 지금의 서초동 부지에 1984년 11월부터 건립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 2월에 음악당과 서예관이 1단계로 개관되었고, 1990년 8월에 미술관과 자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1993년 2월에 마지막으로 오페라극장이 개관됨으로써 전체 건립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비 1,455억 원은 전액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현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술의전당은 하드웨어의 규모만으로도 세계수준의 아트센터로 등장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예술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재정자립도 85%라는 경이적인 운영모델을 창출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아트센터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 : 그렇군요. 당시 건축계에서도 위치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훌륭하게 자리 잡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이 반갑네요. 실업무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본 전당의 도시건축적인 면의 평가를 하신다면?

박 : 정치적 업적이라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건립 당시의 상황에서는 건축규모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었고 그 규모 때문에 위치도 서울 최남단의 우면산에 자리 잡아 도시기능과는 다소 겉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성장 속도와 워낙 빨라서 지금은 오히려 예술의전당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치로 인한 어프로치의 문제는 여전히 약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술의전당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건축 상징물로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박 : 홍보 자료를 보니, 새로운 시작, 신선한 감동(Refresh! Seoul Arts Center)라는 슬로건을 내 거셨는데, 그럴 계기와 근거가 있다면?

박 : 1988년 개관한 이래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청년기에 들어 선거죠.
예술문화 사업에도 최근에는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어 예술상품의 개발과 보급이 종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으므로 운영패턴과 마인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그동안 많이 노후 되어 리노베이션이 불가피하구요.

박 : 그렇다면 건축적인 면에서 전자의 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개선할 부분이나 보완하였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박 : 20여 년 전의 예술시장이나 환경은 지금과 아주 달랐죠.
공급자, 즉 음악이나 공연예술단체 위주로 예술상품이 만들어졌고 공연장 같은 시설들은 대부분이 국공립이다 보니 소비자-관객- 측면에서의 배려는 거의 없었어요. 공연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출연자나 시설운영자의 입장만 반영되고 정작 이용자인 관객들의 의견은 배제되었죠. 결국 관객 공간-객석, 로비, 퍼블릭 공간, 휴게 및 식음료 공간 등-에 대한 배려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예술의전당도 처음 개관할 때 음악당 건물 내에 커피숍 하나 없었어요. 설계에 아예 빠졌었어요.

2개 홀에 하루 관객이 대략 2천명이나 되는데 식음료시설이 없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로비 한쪽에 코너숍 개념의 커피점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리노베이션 하면서 간이카페와 CD점 같은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별거 아닌 곳 같지만 중요한 예로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연장시설의 사용상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같이 남녀 화장실의 규모를 동일하게 배치하였죠. 그런데 공연장의 화장실은 하루 종일 사용되지 않다가 공연 중간의 인터미션 시간에만 일시에 몰려듭니다. 특히 여성들은 사용시간이 남성들보다 훨씬 길지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인터미션 시간 대부분을 화장실 앞에서 줄서는데 다 허비하곤 했지요. 최근에 저희 예술의전당은 화장실을 전부 재시공하여 남녀 화장실 변기수의 비율을 1:1에서 1:2로 바꾸었습니다. 요즘의 아트센터는 무대, 음향, 조명 같은 공연기술부문의 시설 못지않게 관객편의시설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박 : 그런 측면에선 문화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건축이 시대적 상황과 그 의식의 반영이란 면에서 적나라한 예의 하나네요. 저희들도 늘 기획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얘기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합아트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방법 중 하나로 주변과의 소통- 관객, 국내외 예술계, 지식인 그룹 등 -을 들고 계신데, 그 실천적 내용과 나름의 성과를 얘기하신다면?

박 : 관객의 원하는 바를 알고 사회 각 부문의 트렌드를 읽기 위하여 고객자문단, 비전위원회 같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소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국외 예술계와의 소통을 위하여 각국의 대표적 아트센터들과 교류협정을 맺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993년 호주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올해는 북경대극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동경의 산토리홀과 회원제 교류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 건축사 직능 단체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깊고 널리 사회 각 분야와 소통하려 하는데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 : 건축도 대표적인 종합 분야인 만큼 소통이나 조정 능력이 어디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단 부족한 듯도 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웃음). 제가 어떤 경우에 건축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을 통해 건축만이 고고하게 있다는 다소 냉소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전공분야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단체들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데 건축 조직으로서 통합적인 소식들은 잘 접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지식과 자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보았으나, 장차는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누가 뭘 하는지를 알아 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건축과정에서 건축사가 중심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단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개인이건 단체건 기회도 스스로 만들어 가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한 관심도 표하며 다양하게 접면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도 좋고요.

박 : 따가운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도 무슨 특별한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술의 전당 업무를 보신 지가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성장 과정과 함께 입사의 계기나 당시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박 : 대학에서는 철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1981년 한진그룹에 입사하여 건설 쪽에서 약 4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 진학하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1987년에 전 직장 선배님의 권유로 예술의전당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예술의전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과 미술에 소질과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냥 마음이 끌렸습니다. 1단계 개관을 8개월 앞둔 막바지공사 시기였는데 개관일 까지 휴일 없이 매일 일했어요. 기획부 과장으로 시작해서 기획부장, 총무부장, 전시사업부장, 시설부장, 고객관리부장, 기획국장을 거쳐 현재는 사무처장(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연부서만 빼고 거의 전 부서를 다 거쳐 본 것 같습니다.

박 :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배우의 직업적 장점이 다양한 입장,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는데 탤런트적 소질이 있으십니다.
그 동안 근무 과정에서의 보람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박 : 보람 있는 일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많죠.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의 수적 규모 면에서 국내에서는 참고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게 전당이 처음이었고 전당이 하면 표준이 될 정도로 개척자처럼 일해 온 것들이 모두 보람이죠.

어려웠던 점은 2007년 12월에 오페라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가 전소되었던 때인데 그 후 꼬박 1년은 화재복구공사에 매달렸었죠. 무대복구공사로 극장이 폐쇄된 김에 객석 리노베이션공사까지 같이 하였는데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년 밖에 안 되었어요.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는데 거기다 국내 무대기계업체가 도중에 재정사고를 내는 바람에 업체를 변경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그 때는 애써 공사 다 했는데 또 불이 나는 꿈도 무척 많이 꾸었어요.

박 : 저도 그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만큼의 자력이 생기는 것이니 그것도 큰 자산이죠. 다른 취미 활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속하시는지요?

박 : 클래식음악 듣기를 좋아하는데 공연장에 근무하다 보니 아무래도 음악당이나 오페라극장을 남들보다는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지만 어려서부터 LP음반을 많이 들어 왔던 터라 요즘도 오디오를 통한 음악 감상을 자주 하죠.

스포츠는 종목을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 모두 다요.
골프도 무척 좋아하는데 저희 전당은 주말에 관객이 가장 많이 오는 관계로 주말은 정상 근무할 때가 많고 정식 주휴일은 월요일이어서 같이 라운딩할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필드는 자주 못갑니다.

박 : 취미도 현 직장과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젊고 단단한 이미지를 풍기십니다.
저희 건축사들은 건축을 '예술을 포함한 당시 문화의 총체'로 보고 있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박 : 저도 이런 자리 함께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것이죠.
예술을 통해 진리적 모습을 알아가고 구현하며, 시대적 삶이 곧 문화라는 측면에서 건축의 본질이 그러함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 건축의 주역이신 건축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 그런 것과는 별개로….

박 : 그런 개념에서 지금까지의 본 당과 관련한 조직 구성에서 건축 관련 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차 그 참여 가능성은?

박 : 아닙니다. 건축관련 직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 뿐 아니라 건축물의 개보수 및 리노베이션 등이 늘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이지만 건축 관련 인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 시설도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자꾸 진화해야 하는데 그런 진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고급 건축인력이 좀 더 확보되어야겠지요.

박 : 제가 자세한 조직 구성을 모른 탓이네요. 예술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 도시나 건축을 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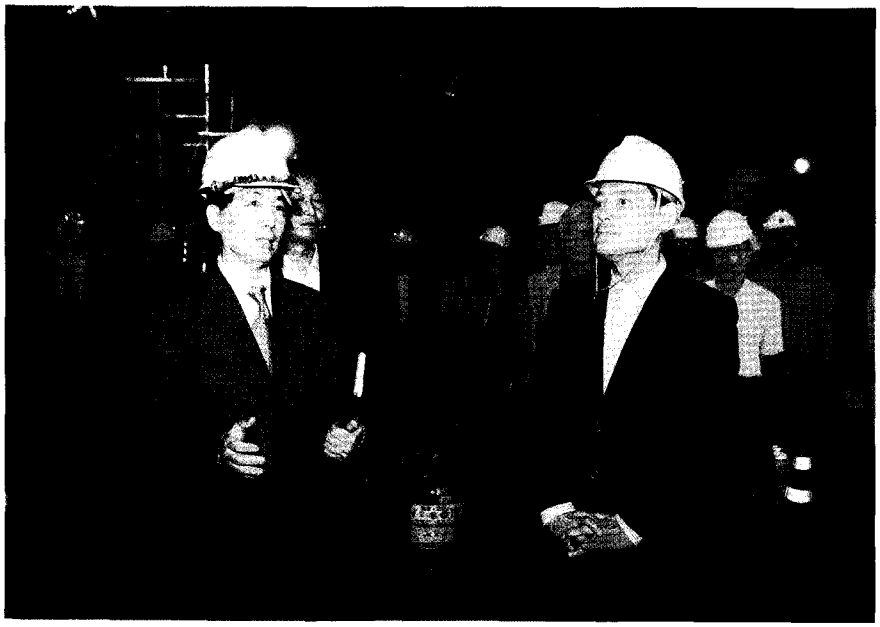
문 : 많은 도시들이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확연히 다른 이미지의 신, 구 도시로 이루어진 파리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박 : 그럼 국내, 혹은 국외의 최고 수준의 복합예술센터를 든다면?

박 : 서로 다른 예술 장르들이 상호 간섭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복합적으로 소비되는 진정한 의미의 복합아트센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여러 형태의 공연시설물들을 한 사이트에 모아서 센터를 조성한 이른바 아트콤플렉스를 복합아트센터라고 하는데 미국의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영국의 바비칸센터,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싱가폴의 에스프라나데, 예술의전당 같은 곳들이 그

예입니다.

건립배경들을 보면 30, 40년 전 당시의 사회 상황들 때문에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이나 랜드마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지어진 곳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유형의 거대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아 좀 주춤하고 오히려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오슬로 오페라극장 등과 같이 단일 목적의 시설물을 독립적으로 짓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컴플렉스의 시설규모와 구성, 예술 활동의 수준 등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링컨센터가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고요 활동의 다양성이나 복합아트센터로서의 예술적 활기 면에서는 시드니오페라하우스가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의전당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2008년 오페라극장 화재복구공사 현장보고 당시 유인촌 장관과 박성택 사무처장

박 : 언제 또 다시 기회를 만들어 좀 더 자세한 얘길 나누고 싶군요.
직접 건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경험은?

박 : 건축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해서 공간의 활용과 배치, 건축물의 내부구조와 인테리어 같은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술의전당 각 공간들의 리노베이션 때 공간의 기본 콘셉트와 배치에 대한 최초 안은 주로 제가 해 왔습니다. 실례로 전당 전면에 메인 엔트런스 역할을 하는 "비타민 스테이션"의 기본 구상과 공간계획은 제가 해봤고요 음악당 리허설룸을 챔버홀로 개조한 건축계획, 이 밖에도 전당 각처에 버려져 있던 스페이스들을 개조하여 공간을 활성화 시킨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어떤 면에서 좀 우아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구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유도되었으면 하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너무 기능과 사설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좀 아쉬웠어요. 공연, 전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교도 하고, 가족, 친구 모임도 하고… 말이죠.

박 : 동감입니다. 역시 큰 건축인 만큼 할 일이 많네요.
본 당에서의 경우나 기타 건축 관련 전시회, 혹은 건축 관련 영화, 행사 등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으셨다면 그 감상이 있으시면?

박 :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그동안 건축전시회가 꽤 많이 열렸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건축대전도 열렸었고요. 꽤 오래 전입니다만 로버트 벤츄리전과 2003년 아키그램의 실험적 건축전이 전시된 적도 있습니다. 로버트 벤츄리가 "현대건축물은 거대하고 영웅주의적인 근대건축물과 달라야하고 대중들과 친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내부의 집기, 심지어 간판도 건축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

박 :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시니 건축적인 용어나 인물에 대해 전혀 어색하지 않게 파악하고 구사하십니다.
우리의 건축이나 건축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박 : 앞에서 언급된 것에서 생각이 난 것입니다만, 보다 시급히 국민, 대중과의 소통, 접촉을 늘려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나름대로는 건축설계에 대해 일반인들보단 좀 더 이해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이해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사 내부로도 많은 이해의 차이가 있겠지요.

최근에는 아주 많이 달라졌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천편일률적인 박스 형태였던 적이 있잖아요? 심지어 아파트조차 긴 상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듯 전국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졌고요. 건축의 기술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 즉, 미술, 디자인, 환경 등 각 분야의 관심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서 문화를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란 그 국민의 수준이라 보더라도 결국 건축사, 혹은 그 단체의 노력이 먼저 전제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이젠 건축설계가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나아가 산업적 생산력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움츠려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비단 건축설계 분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을 벗어난 시각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할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박 : 비 건축인의 눈에도 그리 비춰지고 있다니 부끄럽군요.
타 문화예술 활동과 건축 창작 행위와 비교해 보신다면?

박 : 음~~ 자유로움 속에서 창작의지에 따라 생겨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아무래도 건축부분이 조금 더 부자유하고, 보다 더 사회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예술 분야의 절제된 규율이 없진 않지만, 건축 현실의 그것보단 훨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 같고, 온갖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나 기술, 인간관계 등 종합적이고 너른 분야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 : 왕왕 우리나라 누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건축이 뒤떨어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과 개선 대안이 있다면?

박 :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더군요.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근현대건축의 역사가 턱없이 짧잖아요? 저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과 잠재력을 볼 때 이젠 그런 스스로의 부족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부족할지는 몰라도 장차 유사하거나 보다 나은 여건이 주어지면 거의 일등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언젠가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한 건축계 안팎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 투자 되어야겠지요. 현재 너무 과도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 분열적인 문화 행태나 각박하고 거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 함께 산다는 생각과 결과중심의 경쟁체계를 과정중심적인 체계로 전환 할 수만 있다면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 : 근자 세계적인 문화 한류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 : 기본적으로 우리민족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우수하다고 전제하고 싶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표출시킬 사회적, 경제적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계속 잠복상태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질, 세계화의 흐름, 정보통신의 발달 등 여러 여건이 잘 부합된 결과이고 더 커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박 : 그럼 그 근본적 배경은 무엇이고, 그를 지속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 장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박 :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입니다. 인적 인프라와 그것을 소비하는 시장인프라가 커져야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예술과 예능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인재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문화예술이 대중소비시대를 맞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전념하고 산업화가 용이해졌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예술로는 못 먹고 산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젠 관심분야가 크게 달라지고, 또한 어느 국가나 문화의 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민간섹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좋은 바탕을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유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 : 건축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만, 우리로서는 정부나 우리 사회의 여건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만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어느 지방이나 제일 먼저 문화 관련 건축물을 짓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 : 문화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그 시설을 잘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음은 개선해야 할 거리가 적지 않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트센터 건축물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지자체장들의 가시적인 업적으로 남기기 위하여 우선 그럴 듯한 시설부터 짓고 보자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도시규모에 걸맞지 않게 웅장하게만 짓다보니 세금낭비라는 비난도 많고….
그렇지만 기왕에 지어진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 지원, 그리고 사회 각 층의 진정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작동한다면 분명 도시의 활력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박 : 정말 이젠 외형적인 것을 벗어나 질적 성장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의 대 사회화, 혹은 대중화를 위해 시작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3회를 지났습니다. 차후 본 전당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배가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 가능성은?

박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이미 우수영화시사회를 몇 차례 한 적 있습니다. 예술의 수용범위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영화제도 그런 취지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시간 배정과 조정을 해 본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박 :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좀 더 좋은 작품 선정과 제작 노력을 기울려 장소와 걸 맞는 영화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좋은 건축을 위한 우리 사회적, 혹은 정책적 기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박 : 이제 우리나라도 창의문화에 대한 투자 의지나 여건이 크게 나쁜 상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를 이끌어 낼 능력이나 인재가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과거에는 국가, 혹은 공공조직이 이끌어 간 시대라면 장차는 그 힘이 사용자,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들고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과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지키고 자기들의 유익함을

창출하기 위한 법,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려 할 것인데 그를 방관하는 정부나 사회는 그리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 지원이나 정책적 기반이야 저가 아니라도 많은 제안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좋은 건축이 어떤 가치 생산이 가능한지를 건축사 여러분이 꾸준히 사회에 보여주시고 이해시켜주신다면 좋은 건축, 좋은 환경에의 요구 증대와 함께 존중심과 대가도 따라오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박 : 늘 바쁜 업무이시지만, 현 업무 외 장차 더 하시고 싶으신 것은?

박 : 지금의 업무를 떠나면 청소년기 때 가졌던 꿈을 늦게나마 실현해 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릴까 합니다.

박 :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진흥행사나 사업' 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하는데, 혹시 참여 의사는?

박 :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소통하려는 시대 흐름인 만큼, 건축분야도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친구 건축사가 몇 명 있고 가끔씩이나마 그 내면의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회 홍보가 부족한 듯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건설적인 측면보다 건축 내적인 지식이나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자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어휘나 내용도 알기 쉽게 재해석하거나 정리할 필요도 있구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타 분야 지도층의 참여도 중요하나 일반인들이 자연스레 다가올 수 있도록 더 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거대 담론도 중요하나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박 : 염두에 두겠습니다.
건축과 도시 환경, 설계 업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건축사계에 대해 충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박 : 아이구~ 주제넘은 얘기고 잘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박 : 거리낌 없이 해 주시는 게 결국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따가운 말씀이 더욱 좋습니다.

박 : 그럼 그냥 제 느낌 조금 말씀 드리지요.
건축과 도시 나아가 환경까지 그 영역을 넓혀 보면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정말 그 근본에 맞게, 그를 잊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현실적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지금처럼 자본이나 물질의 위력, 현실 생활에 얽매여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지요. 한편 이해도 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건축사가 갖추고 지켜왔던 독립적 지위나 명예로움이 오히려 낮아진 것 같고, 너무 쉽게 현실 상황에 굴복한다 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축과 도시가 커질수록 그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욱 많아져야 할 텐데… 유사한 예로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에는 유능한 지망생이 줄어들고, 소위 돈 되는(?) 성형, 피부, 모발 등에 몰리는 현상과 같은 거죠.

일부 의식 있는 의사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지식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한 것이겠지만, 그를 구현할 의지나 정신은 오히려 후퇴한 현실 아닙니까? 알고도 안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건축과 도시,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니 만치 그 존재 가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리 기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장 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박 :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충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바쁜 업무 계획과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성심껏 의견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 :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잘 모르던 것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 보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